

안녕하세요 웹드라마<어바웃 아이덴티티> 제작 담당자입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여주인공인 소라역을 제외한 세 분은 캐스팅이 끝난 상태이고

소라역은 현재 저희 드라마 이미지에 맞는 분을 캐스팅 하기 위해 오디션 진행중입니다.

저희가 제작하려고 하는 웹드라마 하이라이트 영상이란 웹드라마 1화 촬영이 아닌

1~12편 시나리오를 하이라이트 영상으로 편집하여 예고편 으로 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트폴리오에 있어서도 영상 1편으로 더 큰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콘티는 매일 수정에 수정을 거쳐 현재까지도 수정 중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현재 모래역 분량 수정 중)일단 대사는 많이 없을 예정이고 나레이션으로 넣을 후시는 촬영 후에 녹음할 예정입니다.

<인물 소개>

주인공

나무-어릴적 부모에게 버림받고 여동생과 둘이 의지 한 채 살다 고모부의 폭행에 시달리다 죽이게 된

후로 살인자로 낙인 찍혀 어두운 존재가 된다. 누구도 믿지 못하고 아무에게도 정을 주지 않게 되었지만

유일하게 믿고 있는 산호라는 친구가 있다. 나무는 밝고 자신감 넘치는 산호를 부러워 하기 까지 한다.

소라-어릴적 부모님이 강도에게 살해당한 뒤, 어떤 이유에서든 살인을 한다는 것을

세상에서 제일 증오하게 된다. 그 뒤로 혼자 살아남기 위해 생활력만 늘어가고, 자신과는 반대로

따뜻한 가정에서 사랑받고 자란 모래의 순수함이 너무 좋다.

산호-나무의 유일한 친구이자 나무를 이해해주는 존재. 사회성이 좋고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 성격이 좋다. 겉으로는 표현을 잘 하진 않지만 속으로는 나무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해준다. 하지만 우연히 소라를 보게 된 날 첫눈에 반한다. 그 일을 계기로 나중에 나무와의 사이가 틀어지는 계기가 된다.

모래-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서 세상을 밝고 행복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인물. 한없이 순수하고 맑다. 모래는 자신과 정 반대인 소라의 생활력과 철든 성격을 동경한다.

<로그라인> (콘티는 촬영 순서대로 그려졌기 때문에 헛갈릴 수 있어 로그라인으로 스토리를

이해하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물소개 자막과 대화로 알려주는 스토리.)

어릴 적 부모에게 버려진 후 고모의 집에서 여동생과 단 둘이 의지하며 자라온 나무
그러던 중 고모부가 술에 취해 여동생을 때려 기절하고, 분노한 나무는 고모부와 다투다
고모부가 죽게 된다.

그 뒤로 여동생은 고아원에 보내지게 되었고, 나무는 소년원에 가게 된다.
3년뒤 석방 후 나무는 유일한 친구인 산호를 찾아가고, 그는 반갑게 맞아준다.
산호는 나무를 집에서 재워 주고 같이 일자리도 알아봐 준 덕분에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 어느정도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되었다.

그 후 둘이서 간신히 작업실 공간이 생기게 되었다.
이곳에 다른 사람은 절대 데려오지 말자는 약속을 하고, 나무는 이곳에서 지낸다.

그러던 중 갈 곳 없는 소라를 위해 모래가 자신과 썸을 타던 산호에게 도움을 청해 이곳으로
오게 되었고,
이 상황을 용납할 수 없는 나무는 화가 나 신고를 하려 했지만 욕을 하며 나가버린다.
그 모습을 보는 소라와 모래. 그의 격한 반응에 또라이라고 생각을 한다.
산호는 이 상황을 알고 나무를 다시 데려와 화해를 시키고, 넷의 어색한 하루가 흐른다.
이 와중에 요즘 자신에게 톰한 산호에게 서운함을 느낀 모래가 산호를 부른다. 그 뒤로 한참
을 오지 않는 둘.

단 둘이 남겨진 소라와 나무는 어색한 기류에 멀리 떨어져 있다. 한참을 식탁에 앉아 핸드
폰을 보다가
기타소리에 나무를 돌아본다. 소파에 앉아 기타를 치는 나무. 아까와는 상반된 모습에 은근
설렌다.
그러다 잠이들고 기타를 내려놓고 주변을 살피다 식탁에 엎드려 잠이든 소라를 발견하고 다
가가 담요를
덮어준 뒤 한참을 바라보다 머리를 넘겨준다. 그러다 귀엽다는 듯 웃는 나무.

몇일 뒤. 매일 놀러오는 소라에게 한소리 하는 산호. 소리가 커지다가 끼어든 나무의 갑작스
러운 고백 질문에
소라는 자신의 마음을 들킨것 같아 자리를 피하고. 그 둘을 보며 표정이 어두워진 산호.
나무에게 다가가 소라에게 비밀을 밝히지 않는다면 자신이 직접 말할거라 협박한다. 산호 본
인도
나무와의 우정과 소라를 좋아하는 마음이 충돌해 고통스럽다.

어색한 기류가 이어지고, 그날 소라와 모래가 성인이 된 기념으로 파티를 한다 준비부터 삐걱대긴 하지만 즐겁다.

스무살이 된 소라와 모래는 술을 마실 생각에 들뜬다. 넷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모래가 산호를 데리고

술을 사러 간다. 그렇게 또다시 둘이 남겨지게 되었고 어색했던 분위기가 점점 변한다. 둘은 서로를 바라보다 눈빛

만으로 서로의 진심을 느낀다. 갑자기 눈을 피하고 정신을 차린듯 자리를 일어나 물을 마시러 간다.

바로 따라 일어나는 나무. 식탁 근처에 있는 소라를 잡는다. 다시 시선이 서로에게 집중되고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 그러다 둘이 분위기가 무르익고 나무는 소라를 들어 올려 식탁에 앉힌다. 그렇게 두 사람은 천천히

눈을 감고 얼굴이 가까워진다. 갑자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모래와 산호가 들어온다. 깜짝 놀라 도망치듯 그 자리를 피한다.

그 기류를 느낀 산호의 표정 클로즈업. 그런 산호를 보는 모래 클로즈업
어색해진 소라와 나무 클로즈업

다시 파티를 시작하고 술을 많이 마신 소라는 소파에서 잠이든다. 뒤척이다 떨어져서 잠에 깨고,

나무와 산호가 싸우는 걸 듣게 된다.

<옥상>

산호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물어보는 소라. 산호는 결국 나무의 비밀을 말해버린다.

충격에 빠진 소라는 현실 부정을 하다 기절을 한다.

나무에게 따지러 간 소라. 온갖 심한 소리를 한뒤 그 자리를 나가버린다.

소라는 고민에 빠지게 되고 소주 병나발을 불며 울다 웃다 실성한 듯 몇일을 보낸다.

그러다 잠에서 깬 소라는 결국 자신은 나무를 아직도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나무의 스튜디오로 뛰어간다.

하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고, 나무의 흔적도 사라져 있다.

그렇게 그 넷은 각자 죄책감을 느끼며 뿔뿔히 흩어지게 되었고

3년 뒤. 소라는 그토록 바라던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고 사내연애중인 남자친구와 점심을 먹으러 가던 중 스쳐 지나간 남자가 나무라는 걸 알아챈다. 곧바로 뒤돌아 뛰어가 팔을 낚아 채

뒤를 돌아보게 하니 나무였다..... 하지만 옆에는 여자친구가 있었다.

손을 스르륵 놓고 놀라다-썩썩한 표정을 짓는다. 그대로 뒤돌아 가는 나무와 나무의 여자친구.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을 한방울 흘리는 소라. (Fade-out)